

한파에 썩고 물러지고...해남 겨울배추 94% 동해

밀동 열고 뿌리 썩어 농민들 한숨
인건비도 못 건져 수확 포기 늘어
눈·비 겹쳐 무안·신안도 피해 커

“올 겨울 추위로 배추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뿌리까지 썩어 내다 팔 수가 없습니다.”
월동배추 주산지 해남과 무안 등에서 배추 동해(凍害)가 심각하다. 전체 재배면적의 80~90%에서 배추 밀동이 썩고 물러져 수확을 사실상 포기해야 할 실정이다.
9일 해남군에 따르면 해남지역은 황산면, 산이면, 문내면 등에서 1817농가가 1793ha의 월동배추를 재배하는 겨울배추 주산지이다.
하지만 올 겨울 한파로 전체 재배면적의 94%에 달하는 1684ha에서 동해가 발생했다.
이들 지역에서는 배추의 뿌리가 물러지면서 썩고 속과 겉잎이 하얗게 말라 도저히 수확을 할 수 없는 처지다.
1월 들어 연이은 겨울 한파는 배추 밭동까지 얼

리고 녹이길 반복하면서 겉잎을 속아낸 알배추마저도 피해가 심각하다.
해남에서는 지난달 5일부터 10일까지 영하의 기온을 보였다.
배추는 통상 영하 7도 이하로 내려가면 동해로 이어지는데 8일에는 영하 17도까지 내려가 관측 이래 최저 기온을 기록했다. 눈과 비까지 겹쳐 피해를 키웠다.
해남군 관계자는 “웬만한 추위에도 배추의 속은 멀쩡한데 올겨울 추위에는 그렇지 않다”며 “뿌리가 지 썩어 도저히 수확을 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한숨 지었다.
무안과 신안에서도 월동배추 동해가 발생하기는 마찬가지다.
현경면과 해제·온남면 등에서 겨울배추 108ha, 신안은 18ha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평균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하면서 배추 속과 겉잎, 밀동이 얼고, 날씨가 풀리면서 물러져 썩는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
그나마 겉으로 보기에겐 괜찮더라도 냉장·보관



올 겨울 연이은 한파로 배추 주산지인 해남지역의 배추 재배면적 94%에서 동해가 발생했다. <독자 제공>

은 사실상 힘들어 제값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무안군 관계자는 전했다.
무안군 관계자는 “전체 면적의 80~90%에서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면서 “일부를 수확하더라도 인건비조차 건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수확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구들장 주산지 보성 오봉산, 국가 문화유산 등재 추진

1980년대까지 전국 생산량 70%
세계 최대 규모...작업현장 보존
온돌문화 체험 세계 관광지 키워야



보성군은 세계 최대 구들장 주산지인 득량면 오봉산을 국가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한다. <보성군 제공>

보성군은 우리나라 전통 온돌문화의 재료인 구들장의 주요 생산지인 득량면 오봉산을 국가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겠다고 9일 밝혔다.
보성 오봉산은 우리나라 전통 온돌문화의 재료인 구들장의 주요 생산지로 1980년대까지도 활발하게 채석 활동이 이어져 왔으며, 전국 구들장 생산량의 70%를 담당했던 곳으로 알려졌다.
최근 국제온돌학회장인 김준봉 박사, 김지민 목포대학교 교수 등 관련 전문가와 함께 현지 답사를 진행하고 본격적인 오봉산 권역 구들장 문화 복원에 나섰다.
현장을 둘러본 김 박사는 “오봉산 구들장 채취현장은 세계 최대 규모 구들장 주산지라 할 수 있을 정도이며, 당시 작업현장들이 고스란히 보존돼 있다는 점에서 보물 같은 곳”이라며 “구들장 문화의 학술적인 가치와 그 우수성이 문화재로서의 탁월성과 보편성을 고루 갖추고 있어 문화재 등재의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보성 오봉산은 산 정상까지 구들장을 옮기던 소달구지길이 그대로 남아 있어 육안으로도 확인이 가능하고, 등산로 주변으로 구들장 채취 현장과 석탑, 구들장 길이 끝없이 연결돼 장관을 이루고 있다.

보성군은 2015년부터 오봉산 구들장의 우수성을 조명하기 위해 ‘오봉산 구들장 이야기’라는 연구 사업을 3년간 진행하면서 구들장의 산지로 호황을 누렸던 지역의 생활문화를 정리하는 등의 사전작업을 진행했다.
지역민들로 구성된 ‘오봉산 구들장 추진위원회’에서는 당시 구들 채취 현장에서 몸담았던 어르신들을 직접 만나 인터뷰 작업을 진행하고 관련된 장비와 도구를 수집하는 등 오봉산 구들장 역사를 집대성하고 있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오봉산에는 우리나라 온돌

문화를 엿볼 수 있는 살아있는 현장”이라며 “온돌문화의 역사성을 보존하고, 한국의 뛰어난 온돌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키워갈 수 있도록 득량면권역 전체를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보성군은 오봉산 구들장 문화유산 등재 후 활용사업으로 구들장 체험관, 온돌 문화 전시관, 구들장가든 등 구들을 모티브로 한 힐링파크 조성을 계획하고 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광양제철소, 설 명절 쌀 1385포대 복지단체 기부

포스코 광양제철소는 지난 8일 설을 맞아 광양에서 생산된 쌀 1385포대를 복지단체 105곳에 기부했다.
광양제철소는 이날 광양시청에서 정현복 광양시장, 이철호 광양제철소 행정부사장, 김재경 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 이사장, 사회복지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쌀을 전달했다.



12억7000만원에 달한다.

광양제철소는 2009년부터 매년 설과 추석 명절이 다가오면 지역농가에서 생산한 쌀을 구입해 사회복지기관과 단체에 전달했다. 12년간 광양제철소가 기증한 쌀은 20kg들이 백미 2만8240포대 총

올해 전달한 백미는 광양제철소 부산물로 만든 ‘친환경 규산질 슬래그 비료’로 재배돼 의미를 더하고 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씨월드고속웨리 이혁영 회장, 400만원 상당 생필품 전달

씨월드고속웨리(주) 이혁영 회장은 설을 앞둔 지난 8일 목포시 만호·유달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400만원 상당의 선물(라면, 화장지, 김)을 전달했다.
이 회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달동과 만호동 주민들에게 따뜻한 나눔을 전하고 행정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이 회장은 “설을 앞두고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며 몸과 마음이 지친 상태



로 추운 겨울을 지내고 있을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주고 싶다”고 말했다.
/목포=박영길 기자 kyl@kwangju.co.kr

산업현장 작업환경 개선 및 근로자의 건강을 지켜주는 호남기업 집진기

창사 32년 (주)YHB ECO

www.yhbeco.co.kr

미스트크리너

**절삭유 미스트/오일미스트 제거
원심력 및 필터기술 적용
99.8% 집진 효율**

더스트크리너

**먼지, 분진, 각종 더스트 제거
카트리지 / 백필터 적용**

전기집진기

**산업/요식업소
연기·기름·미세먼지 98% 제거
생활민원해결!**

**호남지역 대리점 모집
무점포/무자본 판매하실 분**

광주공장 영업부 : 광주광역시 광산구 하남산단10번로 115-33(안창동) TEL : 062 - 953 - 2995 H·P : 010-2051-6401

서울영업본부 : 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륭테크노타운12차 501호 TEL : 02 - 2029 - 6400 ~ 3